

2차전지 원료 리튬 안정 공급한다!

광물공사, 남미 주요광구 석권 ... 삼성물산과 칠레 광구 지분인수 완료

한국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남미 3국의 리튬 트라이앵글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지역인 칠레 북부 아타카마 염호의 리튬 광구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칠레를 찾은 김신중 한국자원광물공사 사장은 11월14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주원료인 리튬을 전량 수입했던 2차전지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칠레 리튬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남미에서 펼치는 리튬 개발사업의 3번째 가시적 성과이면서 단계적으로는 실제 리튬 생산에 가장 근접한 성과물이다.

광물공사는 6월 GS칼텍스, LG상사와 함께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리튬 탐사사업 합작계약을 체결했고, 8월에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볼리비아광물공사와 리튬 개발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신중 사장은 “탐사 단계인 아르헨티나는 현지 정부가 나서 투자를 환영하는 상황이고 칠레에서도 에라스 리스 그룹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실제로 매듭 지어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칠레에서는 초기 2만톤, 증설 후에는 4만톤의 탄산리튬이 생산될 전망이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연 6000톤 가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4만6000톤이면 국내 2차전지 생산기업들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리튬은 휴대폰과 노트북, 전기자동차(EV) 등에 쓰이는 2차전지의 주원료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 이상, 전기자동차 시대에는 연 20% 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자원으로 세계 리튬 매장량의 77%를 차지하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남미 3국에 관심을 갖고 2년 3개월 동안 볼리비아에만 7번 방문하면서 공을 들인 결과 남미에서 연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

김신중 사장은 “볼리비아에서는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단기간에 확보한 기술력과 특사 외교 등에 힘입어 유리한 위치를 먼저 점하게 됐다”며 “든든한 수요기업이 있고 인지도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한국 컨소시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리튬 부존자원이 있는 볼리비아는 각국의 리브콜이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휘둘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6>